



공인중개사협회 전북 여성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여성위원회(위원장 엄남숙)는 3일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을 방문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매년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온 여성위원회는 올해도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엄남숙 여성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여성위원회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7년 연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우석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전북지역 청년들에게 △직무 멘토링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채용캠프 등 취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증액된 예산 7500만 원을 활용해 전북지역 청년들에게 △직무 멘토링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채용캠프 등 취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 등은 지자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산업계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천현 총장은 "그동안 도내 미취업 청년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직무 페스타 등을 진행해 지역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고 맞춤형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 내 고용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전라북도 민선 7기 사업 추진방향과 연계한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난해 전국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장은성기자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북전주농협 윤석일-배성숙 부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 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3월 수상자로 관내 조합원인 윤석일·배성숙 부부가 선정돼 3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지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운동 정신에 부합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농업인을 선발해 표창하는 상이다. 지난 1991년 농업을 시작한 윤석일·배성숙 부부는 현재 전주시 화전동 소재 '신인촌농장'에서 약 24ha의 논에 벼, 밀, 보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2006년 관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벼 재배를 시작해 전주시 친환경벼 생산단지 조성에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또 계획영농 실천 및 친환경농법, 스마트농법 등 신농법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다. 윤석일씨는 4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각종 농업관련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애환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북전주농협 감사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부인 배성숙씨도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윤석일·배성숙 부부는 "새농민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새농민 회원으로서 선진농기술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고금진 박사,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



전북대학교 고금진 박사(유연인쇄전자전지전도도학원·책임교수 강재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을 대상으로 연 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 박사는 차세대 전계발광소자 개발 및 직물형 웨어러블 스마트 전자소자 응용 연구 연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6억14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웨어러블 스마트 전자소자는 실제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소자로 기존 2차원 평면소자와는 다른 섬유용 1차원 구조 덕분에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에 순응하고 뛰어난 착용성과 휴대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빛을 방출하는 전계발광소자는 패션 기능성 의류, 차량 디자인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고금진 박사는 "대면적 섬유형 연속도판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전계발광소자를 개발한다는 점이 이번 연구주제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금진 박사는 전북대 유연인쇄전자전지공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책임교수 강재욱 교수) 및 BK 신진연구인력(차세대플렉서블인쇄전자전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혜윤 대학원생, 열 효율적 관리 스마트 고분자 개발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이 메조젠 기반의 반응성 분자를 이용해 우수한 열전도 특성을 가지면서도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고분자 재료를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 교수팀의 고혜윤 연구원(박사과정)이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고분자 분야 국제 학술지인 영국 왕립학회의 '폴리머 케미스트리' 3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고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액정 단량체의 나선 구조를 제어해 다양한 반사색을 나타내는 스마트 광결정 페인트 개발 연구로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화학교육지' 8월호 표지 논문에도 선정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팀은 기존에 상용되는 고분자 소재보다 월등히 우수한 열전도 특성을 가지면서도 상전이 시 열을 저장하고 방출해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방열 고분자 소재를 개발했다. 또한 분자 간 결합에 따른 형태 안정성을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상전이 과정에서 외부 유출 없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한 스마트 방열 고분자 소재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는 차세대 건축 및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고혜윤 연구원은 "효율적인 열에너지 관리 기술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기술의 연구에 매진해 원천소재 산업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더 진전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건강관리실 개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임직원 건강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관리실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상담, 체성분 측정을 통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간단한 상비약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직원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평소 혈압이 높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보건관리자를 통해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신설미 보건관리자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해 임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허강무 교수,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취임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신입 학장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허 신입 학장은 2014년부터 4년간 공공인재학부 학부장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4년 동안 인재등용관 지도교수 및 부관장 등을 맡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국토



교통 분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포럼 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입법정책 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다. 허 신입 학장은 "그간 정부 및 국회 등의 대외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소멸과 대학 위기의 전환기에 글로벌 융합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융합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최초로 전북대에 설립된 국제대학의 새 모델이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